

- 주요 뉴스: ECB 총재 7월 및 9월 금리인상 방침 재확인 분절화 위험에는 단호하게 대처
  - 미국 재무장관,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 낮출 필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논의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금년 지속적인 경제확장을 예상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를 우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ECB의 분절화 대응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  
**유럽 주가 상승[+1.0%], 달러화 약세[-0.2%], 독일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증시는 노예해방일 대체공휴일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및 여행관련주 강세 등으로 1.0%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통화긴축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원인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노예해방일 대체공휴일로 휴장  
 독일은 물가상승 압력 확대 우려 등으로 9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1.8원, -0.7원) 보합, 한국 CDS 하락

|    |      | 6/20일   | 6/17일   | 전일대비   |                 |       | 6/20일   | 6/17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휴장      | 3,674.8 | -      | 국제<br>금리<br>10y | 미국    | 휴장      | 3.23%   | -      |
|    | 유럽   | 407.14  | 403.25  | 0.96%  |                 | 독일    | 1.75%   | 1.66%   | 9bp    |
|    | 중국   | 3,315.4 | 3,316.8 | -0.04% | CDS<br>5y       | 한국    | 48bp    | 50bp    | -2bp   |
|    | 일본   | 25,771  | 25,963  | -0.74% |                 | 중국    | 83bp    | 85bp    | -2bp   |
|    | 한국   | 2,391.0 | 2,440.9 | -2.04% | 위험<br>지표        | EMBI+ | -       | 398     | -      |
| 환율 | 달러지수 | 104.48  | 104.70  | -0.21% |                 | VIX   | 휴장      | 31.13   | -      |
|    | 유로화  | 1.0511  | 1.0499  | 0.11%  |                 | WTI유  | 휴장      | 109.56  | -      |
|    | 엔화   | 135.07  | 135.02  | -0.04% | 원자재             | 구리    | 휴장      | 401.4   | -      |
|    | 위안화  | 6.6925  | 6.7167  | 0.36%  |                 | 금     | 1,838.7 | 1,839.4 | -0.04% |
|    | 원화   | 1,292.4 | 1,287.3 | -0.39% |                 |       |         |         |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ECB 총재, 7월 및 9월 금리인상 방침 재확인. 분절화 위험에는 단호하게 대처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금융시장의 긴장 고조가 ECB의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 러-우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역내 경제는 중기적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
- 또한 역내 분절화 위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위험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이며, 이는 ECB의 의무라고 설명
- 한편 역내 금융 및 주택시장이 급격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지금까지 질서 있는 자산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매우 심각한 자산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포르투갈 중앙은행 센테노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을 위한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역내 부채위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발언
-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는 ECB의 목표가 취약국의 국채 스프레드 축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 단순히 금리인상의 영향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발언. 한편 금년 여름 ECB가 0.75%p의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첨언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재무장관,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 낮출 필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논의

- 옐런 장관은 핵심 물품 관련 일부 라이벌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공급망의 취약성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프렌드 쇼어링(동맹 및 우방국끼리 공급망 구축) 전략을 지지한다고 강조
-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수익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다만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 국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 한편 주요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하면 여타 국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

##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금년 지속적인 경제확장을 예상

-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제어 노력의 일환으로 연준은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한편 러-우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 등은 위협 요인이라고 평가

## ■ JPMorgan, 금년 하반기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소지

- Mislav Matejka 스트래티지스트는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이에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 연준의 정책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기만 해도 시장 심리는 안정될 수 있다고 부연

## ■ 영란은행 정책위원, 파운드화 환율 안정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 필요

- 캐서린 만 위원은 지속적인 파운드화 약세를 용인하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 국내 물가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양호한 노동시장, 견고한 주택시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를 우려

-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현행 3.70%로 유지. 5년물 LPR도 4.45%로 전월과 동일.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당국에서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한 자본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 SPI 자산운용의 Stephen Innes는 인민은행이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진단.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LPR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

## ■ 일본은행 총재, 정부와 공조하여 외환시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

- 구로다 총재는 최근 엔화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율은 기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또한 급격한 엔화 약세는 기업의 사업계획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6/20 현지시각 기준)

- 독일 5월 생산자물가(전월비): 1.6%, 4월(2.8%), 예상치(1.5%)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장, 금융여건 악화 전망을 공유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and markets share a secular awakening)

- 지난 주 세계경제와 시장에서는 새롭게 각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발견. 구체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금융여건이 보다 긴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관련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
-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주요국 통화긴축과, 이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금융안정에도 위협. 세계경제는 성장여력 약화, 고물가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 ■ 미국 주가, 역사적으로 통화정책 전환되어야 저점 확인 - WSJ

(Stocks Historically Don't Bottom Out Until the Fed Eases)

- S&P500 지수는 지난 주 5.8%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 S&P500 지수는 1950년 이후 15% 이상 하락했던 17회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된 11차례의 경우에만 바닥을 통과. 1946년 이후 경기침체 기간 주가는 평균 24% 하락
- 최근 연준은 75bp 금리인상 후에도 연내 수차례 추가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 또한 향후 물가상승률의 예상치 상회 및 이에 따른 통화긴축 강화 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 저점 확인은 기대난

### ■ 미국의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Bear market to the rescue)

### ■ 이탈리아 경제 관련 회의적 시각, 드라기 총리 퇴임 후 증폭될 우려 - Financial Times

(Italy and its banks feel the heat of spooked bond market)

### ■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상태, 유럽의 경제에도 위험요소 - 블룸버그

(Political Gridlock In France Is Risk for Europ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